

▶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무본 II, 고전의 진화' 15일부터 이틀간

# 우리 전통 춤 근본 들여다보다

정재·민속춤·창작춤 등 정·중·동으로 구성

공연의 대미 '동' 김매자 명무가 완성한 '춤, 그 신명'으로 꾸며



김매자 명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무용단은 '이흥구·김매자 명무의 조합으로 우리 춤의 정수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5~16일 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지는 '무본 II, 고전의 진화'는 한국 춤의 근본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로 기획된 시리즈물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우리 춤의 근간을 이루는 정재와 민속춤, 그리고 동시대의 예술로 진화하는 창작춤 등 정·중·동 3개의 장르로 구성됐다.

1장 '정(정)'에서는 조선 초, 지리산을 배경으로 삼봉 정도전이 태조에게 지어올린 당악정

재 '수보록'의 장중한 무대가 펼쳐진다. '악학궤범'의 수보록 기록을 근거로 제작된 공연은 당시의 무악을 그대로 재현할 예정이다. 이흥구 명무(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예능보유자)가 고종·자문을 맡았다.

2장 '중(중)'에서는 민속무용 '태평무'와 '교방굿거리춤'이 잇달아 무대에 오른다. 태평무는 한국근대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응이 경기도당곡의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화시

킨 작품이다. 이후 한영숙·손경순·북미경(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으로 이어져온 춤사위를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다. 교방굿거리춤은 이시대의 마지막 권번 예인 김수악 선생의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모티브로 새롭게 구성했다.

공연의 대미 動(동)은 한국 창작 춤을 구조화한 결정체로 평가받는 '춤본'과 '춤, 그 신명'으로 꾸민다.

'춤, 그 신명'은 전통의 현대화를 화두로 우리시대의 몸짓을 표방하며 창무회를 창단한 김매자 명무가 과격적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완성했다. 그는 곱고 예쁜 춤이 아닌 가공되지 않는 춤, 원초적인 힘과 자유롭고 편안한 기운으로 추는 춤을 표방한다.

북미경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는 "한국 춤계의 두 거장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선조들의 예약정신과 내면의 세계를 그리는 춤사위 그리고 신명의 끝자락에 뛰어오르는 춤꾼들의 숨결까지 전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연은 전석무료로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오후 8시에 각각 열린다.

예약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와 최명희문화관이 주관하는 '소리백일장'과 '감상문 쓰기' 대회가 2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소리백일장.

## '소리백일장'에 도전해보세요

22일부터 이틀간 소리문화전당서... '감상문 쓰기'도 열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와 최명희문화관이 주관하는 '소리백일장'과 '감상문 쓰기' 대회가 소리축제 기간에 열린다.

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글쓰기 대회로, 축제 현장을 찾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백일장'은 오는 22~23일 이틀 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20일 오후 5시까지 메일(jeonjuhonbul@nate.com), 또는 전화(063-284-0570)로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모악당 앞 부스)에서 접수하면 된다.

날짜마다 시제가 달라 이를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백일장이 진행되는 오전

10시~오후 6에 자유롭게 참가하면 된다. 시상은 운문과 산문,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뉜다. 장르·부문별 장원 4명과 가작 20명에게 전북지역 화가의 작품을 선물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작은 기념품이 제공된다.

'감상문 쓰기'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판소리축제 공연과 전시·체험행사 등의 체험기를 30일까지 올리면 된다. 참가자 중 3명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선물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Color of Sari(때깔 나는 소리)'를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편백숲 등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뮤직포유 '토요음악회', 16일 은파물빛다리광장서

강석중 뮤직포유 대표(사진)는 "음악공연을 통해 재미와 보람을 찾는 이들이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봄·가을음악회 무대에서 또 봅시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달콤한 모습을 떠올리면, 이젠 내 맘대로 음악회를 멈출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매번 사비를 들여 음악회를 열고 있는 강대표는 음악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참여로 인하여 "그간 해온 음악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이라며, 제174회 토요음악회를 오는 16일 은파물빛다리광장에서 연다"고 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유진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선 소프라노 김진희·정지영, 테너 김규욱이 '축배의 노래'로 바이올리니스트 최나현 아렉산더 사사와 비올리스트 스키바테티아나가 '사랑의 인사'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와 함께 FM노래모임과 조찬백, 임덕희, 오은미와 친구들이 출연해 꿈을 노래한다.

강 대표는 "한결 선선해진 바람과 힘을 뽐냈듯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푸른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꿈꾸고,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사랑을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면서 "가을과 음악이 주는 기쁨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2015-17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2017 전북방문의 해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주최 완주군 주관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2017 전국웃놀이 청춘 챔피언십' 전주 지역예선이 전문문화전당에서 열린다.

## 16일 '전국웃놀이 청춘 챔피언십' 전주지역 예선

전통놀이문화회조성확산을 위한 '2017 전국웃놀이 청춘 챔피언십'의 전주 지역예선이 오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전국웃놀이대회에는 서울·대전·부산·전주 등 각 지역별로 128명씩 총 512명이 지원했다. 이들 지원자 중 총 36팀 144명이 전주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에는 서울에서, 이달 2일에는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9일에는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각각 예선이 치러졌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 각지의 웃놀이 고수 35개팀 135명의 선수들은 오는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3등 50만원 등 총 2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메인 프로그램인 웃놀이 경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의상과 소품을 통해 미음

껏 뽐낼 수 있는 '베스트드레서' 선발대회도 열린다. 베스트드레서 대회 역시 1등에게는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이와 함께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공연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중 지난달 2층(한문화관)에는 그때 그 시대, 한문화 체험을 비롯해 뜻깊은 세 배기, 전통문양 한지 북마크 만들기, 한지공예체험 등으로 꾸며진 '한문화 체험전'을 마련해 대회의 재미를 더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며, 아리랑스쿨이 함께 기획·운영한다.

대회정보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